

호남정치 위상 추락...지역출신 지명직 최고위원 촉구

민주 선출직 최고위원 잇단 고배
이재명 2기 친명·영남·수도권 재편
“지역 대변 역할 부재” 우려감 고조
박지원, 서삼석 추천·강위원도 거론

‘이재명 2기’ 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친 가운데, 이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두고 호남 출신 지역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최고위원에 전북 출신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있는데다 김운덕 의원(전북 전주갑)도 사무총장을 유임하면서 호남권 인사를 더 기용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광주·전남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호남 대표 후보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낙선하면서 민 의원이 공언한 ‘호남정치 복원’도 힘을 잃게 됐다.

특히 향후 2년간 민주당을 이끌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연주 최고위원의 경우 한준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라도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2명 이내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선출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을 경우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벌써부터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는 의원도 생기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원내 대원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광주에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출마했다 낙선한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실제로 강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호남 몫 최고위원 강위원 추천’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 하루만에 50명이 넘는 당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지지자는 “원외로 나선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4할에 가까운 무시할 수 없는 표를 얻어냈다. 광주·전남 활동 이력이 있는 강 대표가 중앙서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지방선거를 염두해야 한다. 초석을 잘 다질수 있는 원외 인사가 필요하다. 중앙에 호남 인물이 들어가야 한다면 대표적 친명계이자 전국구 계파의 장인 강 대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당 영광지역위 상임고문은 “민주당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위원에 호남 인물이 있어야 한다. 당 지도부에 김대중 정신의 뿌리인 광주·전남인이 없다면 지역 소외감이 심화될 것”이라며 “역할의 유무를 떠나 호남이 가진 상징성의 효과도 큰 만큼,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지명돼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호남 표심을 한 데 뭉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에서는 5선의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당 지도부에 서삼석 의원을 추천했다.

박 의원은 “본래 사무총장으로 서 의원을 추천하고자 했으나, 김운덕 총장이 유임함에 따라 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실 측은 “아직 최고위원 지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당과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가지는 않았다”며 “좋게 봐주신 박 의원의 추천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 순천 시·도의원, 전남 국립의대 공모 참여 촉구

“순천대 불참시 의대유치 불가능”
“상황 변화 따라 유연 대처”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속 순천시·도의원들이 순천대의 전남도 의대 공모 참여를 촉구했다.

순천 민주당 당원 및 도의원, 시의원 20여명은 20일 오전 순천대학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열린 자제를 촉구’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순천시의 단독 신청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입장을 밝힌 것처럼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순천시시장, 순천시 의장, 순천대총장, 김문수·권항엽 의원 등 5인이 전남도 공모에 불참 의사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밝힌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동부권 도민을 위해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존의 어떠한 정치적 합의가 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 민주당 당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대를 향해서도 “공모 과정에 참여해 대학이 추구하는 의대와 부속병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의대 설립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전남도도와 용역기관은 순천 등 동부권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해 모든 모두가 상생할 의대 설립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순천시와 순천대는 순천대와 순천시는 김문수 국회의원의 전남도 공모 참여 촉구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일 뿐 전남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순천대의 공모 불참은 지난 5월 5자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입장 변경 시 5자 합의가 다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7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시장, 순천시의회회의장, 순천대학교 총장, 국회의원(김문수·권항엽) 5자합의를 통해 함께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공식적 발표하고 공모 불참을 선언했었다.

순천=배서준 기자



태풍 ‘종다리’ 대비 해수연안 저지대 점검

해 목포시 내항을 방문,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대조기 제9호 태풍 ‘종다리’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해수연안 저지대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

전남도 제공

**광주광역시**

**광주은행**

광주상생체크카드가 후캐시백으로 변경됩니다.

2024. 9. 1. 부터

변경 전 선할인 방식

5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7% 할인된 46만 5천원 출금

변경 후 후캐시백 적용

5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의 7%를
다음달 12일에
캐시백으로 환급**
**단, 환급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대상카드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선 할인 방식으로 구매 및 충전 가능
변경일	2024년 9월 1일부터
할인방식 변경안내	- 충전시 선 할인이 아닌 충전 후 이용한 금액에 대해 후캐시백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 충전 후 이용해야하며, 충전을 하지 않고 이용한 금액은 할인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충전한도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 통합 1인 50만원 ※ 광주상생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 구분 - 광주상생체크카드란? 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충전한 뒤, 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 광주상생선불카드란?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는 선불카드로, 액면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 및 충전 후 상생카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문의	광주은행 전 영업점 또는 카드헬프센터 1577-3650

※ 2024. 8. 31(토) 0시부터 2024. 9. 1(일) 오전 3시까지 광주상생체크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광주상생선불카드는 중단 없이 이용 가능)
※ 2024. 8. 31(토) 오후 8시부터 광주상생체크카드 충전금 잔액은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연결계좌로 자동 반환될 예정입니다.
※ 카드 연결계좌가 정지 등의 사유로 인해 충전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 별도 반환 완료시까지의 광주상생체크카드 거래가 불가합니다.
※ 자동충전 신청 내역은 일괄 삭제 예정으로, 자동충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024. 9. 1(일) 이후에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